

<신앙체험 - 말기 암에 살아가는 진실한 생명> 제1회

삿포로시 오카모토 히로미 씨 (64세)

◆ ^{誓願}서원의 ^{題目}제목 - 거기에 힘이 나오는 ^{秘策}비책이 있다

시한부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보이는 감정은 다양하다. 의식을 잃을 정도의 충격을 받는 사람도 있다. 한편, 신앙을 가지고 강한 의지를 밝히는 사람도 있다. 표면적인 격랑을 떠나 심연(深淵)의 정적(靜寂)을 향한 기원. 거기에는 “살고 말겠다.”라는 숨결이 무한히 확대되는 것을 보여준다.

오카모토 히로미 씨(우에노야호로지부, 부총현장)도 그랬다.

2013년 1월, 암은 위와 폐 그리고 간에 퍼져 있었다. 남은 수명이 3개월이라는 선고를 받았다. 재검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8차에 걸쳐 항암제를 투여했다. 부작용에 시달렸지만 ‘공격적인 제목’이 엄청난 힘을 이끌어냈다. 장기의 암은 극적으로 사라졌다.

증상이 없어지기까지 5년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 여름 대장암과 뇌종양이 새롭게 발견됐다.

지금 오카모토 씨는 병과 싸우고 있는 중이다. 말기 암의 몸으로 내뿜는 말에 바로 ‘진실한 생명’이 응축되어 있다.

“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우선 이케다 선생님께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병마(病魔)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쳐 가는 것에 제자의 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은 이 일을 만나기 위해서 였도다.’(어서 1451쪽) 하는 어서를 생명으로 읽었습니다.

주치의에게 ‘암세포는 반드시 사라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좋아, 싸우고야 말겠다.’라는 방향으로 생명이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제천선신으로 변했습니다. 주치의도 간호사도 저에게 좋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사람에게 제목을 보냈습니다.”

“저는 항암제의 부작용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긴다.’는 말의 무게감에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로부터 ‘이기는 것보다 지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듣자 바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러자 동지들이 보내주는 제목이 몸에 팡팡 울려왔습니다.”

“부작용이 가장 심했을 때에도 좌담회에 갔습니다.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습다. 이케다 선생님과 한 약속이니깐요. 목숨과 바꿀지라도 선생님과 한 약속을 버

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입니다.

‘반드시 회합장소까지 도착하겠다. 체험을 이야기하겠다.’ 좌담회에 가는 전차 안에서 꼭 학회가 큰소리로 불렀습니다. 좌담회가 끝났을 때 느끼는 생명의 상쾌함, 그것이 학회 활동이지요.”

“저는 병동 밖에서 제목을 불렀습니다. 거기가 직접 본존님과 대화하는 장소였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항암제로 인해 머리카락이 없어 추웠기 때문에 수건으로 볼을 감싸고 제목을 불렀습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병원의 한쪽 구석일지라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냥 제목을 부르면 좋아질까. 그렇게 해도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어디까지나 병마와의 싸움입니다. 그것에는 지지 않는 제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맹서한 원은 깨뜨리지 않겠노라’(어서 232쪽)라는 서원의 제목입니다.

‘낮게 해주세요.’라는 기원은 결의가 없는 약한 것입니다. ‘반드시 낮고 말테다.’라는 결단입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지만, 거기에 힘이 나오는 비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무(無)’가 되면 강합니다. 기원에 잡음이 없어집니다.

언제나 스승과 대화하는 상태입니다. 이케다 선생님과 함께 싸웁니다. 선생님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엄청난 눈물이 나옵니다. 남묘호렌게교(南無妙法蓮華經)라는 일곱 문자를 감격에 겨워 발음하기 힘들 정도로.

암이 그런 경애로 나를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암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암에 걸려 보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감정인 것입니다.”

“자신이 강해지면 실은 마성도 함께 강해집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암과의 싸움에 지치면 이 법칙에 지배됩니다. 그래서 쉴 수 없습니다. 방심할 수 없습니다.

병마의 기세는 굉장히 대단해서 제목의 소리를 빼앗으려 합니다. 괴롭게 만들어 일곱 글자를 말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때는 생명의 근저에서 내일을 향한 제목을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투병한다는 것은 암에 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투쟁입니다. 상태가 나빠져 힘든 치료를 받고 있을 때는 어서가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정말 그대로입니다. ‘니치렌의 혼을 먹물에 물들여 넣어서 쪼으니 믿으실지어다’(어서 1124쪽)라고. 승리하기 위한 일념의 제목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똑바로 응시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싸웠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은 이케다 선생님께 드린 맹세입니다. 그 일점밖에 병마에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암은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승에 부응하는 제자의 투쟁입니다. 이기는 것보다 지지 않는 것. 나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후기>

오카모토 씨의 생명을 분기시키는 한마디가 있다.

“부탁합니다.”

25세의 여름날, 창가반으로서 회합의 운영을 지원하던 중 차의 창문을 내리고 인사를 하시며 이케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시는 임원에 대한 격려인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기 암과 싸우면서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숙명에도 결코 지지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런 이유로 취재를 하는 중, 오카모토 씨는 여러 차례 힘차게 입에 담았다. ‘서원’이라고. ‘제자의 투쟁’이라고.

이케다 선생님을 얘기하면 생명이 빛난다. 약동한다.

신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는 제육천의 마왕과의 공방전. 대장암, 뇌종양이라는 통보를 받고서도 ‘올 테면 와라.’라며 동요하지 않는다.

이전의 정기검진에서는 전이 없이 순조로운 회복으로 진단 받았다. 오카모토 씨는 ‘공격적인 제목’으로 암을 억제하고 있다.

<끝>